

대담: 김민예숙, 로라 브라운과 여성주의상담을 이야기하다*

고 혜 경 최 박 미 란 김 현 정 김 민 예 숙†


여성주의상담연구회

2012년 김민예숙 여성주의상담연구실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여성주의상담 이론을 발전시키고 교육·연구·상담 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가 2022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1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보다 앞서 여성주의상담을 발전시켜온 미국 여성주의상담 역사를 살펴보고 그 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별 대담 ‘김민예숙, 로라 브라운과 여성주의상담을 이야기하다’를 마련하였다. 본고는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특별 대담의 내용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상담심리학 내에서의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주의상담을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한다. 대담은 김민예숙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이사가 질문하고 로라 브라운 박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2022년 8월 27일 Zoom으로 진행되었다. 김민예숙 이사는 여성주의상담이론을 연구, 교육하며 여성주의상담연구실, 여성주의상담연구회 등을 통해 여성주의상담 영역을 개척해온 한국 여성주의상담 2세대이며 『여성주의상담 구조화 모델(2013)』의 저자이다. 로라 브라운 박사는 미국 여성주의상담자이자 외상 생존자 전문상담자로 미국 여성심리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내에는 『여성주의상담의 전복적 대화(2012)』, 『여성주의상담 이론과 적용(2020)』 등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담에서 우리는 1970년대 초, 중반 로라 브라운과 김민예숙의 여성주의상담자로서의 정체성 출발과 미국 여성주의상담의 전개 과정 그리고 한국과 미국 내 여성주의상담의 위치 차이를 엿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50여 년 여성주의상담과 트라우마 치료에 매진한 한 상담자의 굳은 신념과 가치를 느끼게 된다. 이는 여성주의상담자에게든 다른 상담이론에 근거를 둔 상담자에게든 또는 여성심리 연구자에게든 각자의 위치에서 큰 울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주제어 : 로라 브라운, 미국 여성주의상담, 여성주의상담자 정체성 발달

* 본고는 2022년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학술대회 특별 대담의 전문으로 대담자 선정과 기록, 번역, 대담 진행과 감수에 참여한 고혜경(부산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최박미란(김포여성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김현정(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김민예숙(파운더 수퍼바이저, 전 춘해대 교수)이 투고한 것임.

† 교신저자: 김민예숙, 여성주의상담연구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곡1길, yeawooyeasook@hanmail.net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김민예숙: 안녕하세요? 인터뷰 요청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민예숙입니다. 은퇴한 교수이고 10년 전 한국에서 여성주의상담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기념할 것이고, 이 인터뷰는 그 기념의 일부입니다. 여성주의상담연구회는 12명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13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라 브라운: 멋지군요!

김민예숙: 네. 우리는 미국에서 출판된 여성주의상담 책들을 읽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여성주의상담자이며, 선생님의 책 중 두 권 <전복적 대화 Subversive Dialogues>와 <여성주의상담 Feminist Therapy>는 한국어로 번역된 바 있습니다¹⁾. 저는 그 중 <전복적 대화 Subversive Dialogues>를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로라 브라운: 감사합니다.

김민예숙: 그 책들은 영감의 원천이었고, 우리는 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와 두 동료는 2022년 8월에 한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

에 대해서 미국심리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미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여성주의상담자와 한국인 여성주의상담자의 첫 대화는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라 브라운: 동의해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매우 영광이에요.

여성주의상담자 정체성 발달

김민예숙: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인터뷰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대화는 가을 학술대회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할게요.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여성주의상담을 하게 되셨나요?

로라 브라운: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기 2년 전에, 제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상담의 세 가지 대표적인 문헌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나오미 와인스타인(Naomi Weinstein)의 논문이었죠. “과학적 법칙으로서의 어린이, 부엌, 교회: 심리학이 여성을 구성한다 Kinder, Küche, Kirche as Scientific Law: Psychology Constructs the Female”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²⁾. 전 당시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게 되었

1) 로라 브라운의 <Subversive Dialogues(1994)>는 김민예숙, 강문순, 손연주가 번역하여 2012년 『여성주의상담의 전복적 대화: 젠더와 권력의 전복』으로, <Feminist Therapy(2018)>는 2020년 정애경, 김은하, 윤은희, 이지연이 번역하여 『여성주의상담 이론과 적용』으로 국내 출판되었다(저자 주).

2) Naomi Weinstein(1939~2015) 미국 인지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 심리학 교수. 1968년 ‘심리학은 여성이 실제로 어떤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특히 심리학이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하였으며 본문의 ‘심리학이 여성을 구성한다’(Psychology Constructs the Female)는 1981년에 쓴 글이다(출처: APA에서 일부 발췌).

습니다. 저는 원래 9살 때부터 임상심리사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트, 융, 로저스, 펄스를 읽었어요. 하지만 여성운동에 뛰어들고 나오미 와인스타인(Naomi Weinstein)의 글을 읽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성차별적인 심리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1972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19살 때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간호조무사로 정신병원에 입사했습니다. 그해 저는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펄리스 체슬러의 책, <여성과 광기 Women and Madness>였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인상을 남겼는데요. 우선, 그녀가 책에서 묘사한 것은 제가 정신병원에서 본 것입니다. 저는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이 처신을 좀 더 잘한다면 구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친간간 생존자들이 입막음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소위 '환상'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려면 화장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여성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슬러가 썼던 것을 보고 있었어요. 매일 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해, 저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정신 건강에 대한 임상적 판단에 관한 유명한 브라버만과 동료들(Broverman et al.)의 논문³⁾

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눈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신과 병원에서 일했을 때까지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저는 제가 학사 학위를 받은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한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여성심리학회(Association for Women in Psychology)에 소개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심리학회는 1969년 미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심리학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가 말하길, "여기 이런 단체가 있어.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가입했죠. 1973년 9월,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이미 저를 여성주의상담자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지만요. '펄리스 체슬러가 말한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만 알았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여성심리학회의 첫 번째 학술대회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고 두 달이 지난 후에 열렸어요. 제가 진학하고자 한 대학원에서 차로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저는 그 학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20살이었던 저에게 매우 어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의 30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성주의 상담자였고 저의 첫 멘토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여성주의상담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3) 1970년 '정신 건강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임상적 판단(Sex-role stereotypes and clinical judgments of mental health)' 논문. 정신건강전문가 79명을 세 집단으로 나눠 건강한 남성/여성/성별이 특정되지 않은 성인을 설명하는 형용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성별과 상관

없이 건강한 남성과 건강한 성인을 묘사하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건강한 여성과 건강한 성인을 묘사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를 실었다(출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여성주의상담자훈련과정 초급 3기 자료집).

제 지도교수의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제가 그에게 계속 그런 종류의 논문과 보고서를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좋은 학생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과 다른 여학생들을 조직하고 협력할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원생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매우 화난 여성주의자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큰 곤경에 처하지는 않았습시다. 아시다시피, 여성주의자들은 보통 화가 났거나 위협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20살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도 조금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옳은 일에 대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 커리어에서 대학원 시절부터, 제가 여성주의상담자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시간은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세 개의 문헌과 질 여성심리학회에 연결해준 당시 제 여자친구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예숙: 네, 저도 당신이 언급한 책들이 친숙한데요, 특히 <여성과 광기 Women and Madness>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여성주의 상담자가 되는 것은 선생님에게 운명처럼 보이네요.

로라브라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민예숙: 그렇다면 처음에 여성주의상담의 어떤 특성에 이끌리게 되셨나요?

로라 브라운: 음, 그 중 하나는 여성주의상담이 성차별에 대한 분석과 치료적 관계에서의 권력 분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고 저는 이미 칼 로저스(Carl Ransom Rogers)가 여성주의상담 이전에 상담 이론가로서 내담자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 작업들에 끌렸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그 당시 유행했던 정신분석학 이론보다 내게 더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끌렸어요. 저는 반전 운동,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전쟁을 멈추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좌파였던 사람이고, 여성주의상담과 여성운동은 미국 좌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정치적으로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광기 Women and Madness>를 읽은 후, 저보다 10살이나 15살 많은 선배 여성주의상담자의 연구에서 제가 보고 있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진실을 보니, 눈을 땔 수가 없었어요.

김민예숙: 알겠네요. 진실이 당신에게 중요했다는 것어요. 다우닝과 루시(Dawning & Roush)는 여성주의자 정체성 발달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저와 다른 세 명의 연구자들이 여성주의상담자 정체성 발달에 관련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여성주의상담자로서 선생님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묘사할지 듣고 싶네요. 선생님이 언제나 여성주의상담자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변화는 있었겠죠?

로라 브라운: 음 제가 생각하기에 첫 단계에서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심리학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란 건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여성혐오와 성차별, 그리고 억압적

인 구조 현상의 다른 형태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시작한다면, 제가 대학원에서 읽도록 주어진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비판하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시작하게 되는 것이예요.

김민예숙: 주류를 비판하면서요.

로라 브라운: 비판으로 시작한 다음엔 다른 여성주의상담자와 연대하겠지요. 저는 그것을 첫 번째 여성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아주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저는 발전된 여성주의상담기관의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여성주의상담자들과 이론의 발전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1982년 그 모임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켄 루먼(Ken Luman)이나 에이드리언 스미스(Adrienne Smith), 조 로빈스(Joe Robbins), 미셸 시겔(Michelle Segal)과 같은 선배들이었는데, 모두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주의상담자가 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명확한 이론적 방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상담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냐하면 여성주의상담은 단지 상담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배운 기술을 평가하고 변형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특정 기술이 평등주의와 권력과 교차적 정체성 intersectional identity⁴⁾이라는 문제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 틀 작업입니다. 그 시기가 제가 <전복적 대화 Subversive Dialogues>를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도 그 책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렸고, 바보 같아서요. “좋아, 내가 그 책을 써야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내 책을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버릴 수도 있고 내 책에 동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놀랐게요. 사람들은 “로라, 이건 좋은 책이야”라고 말했어요. 전 매우 매우 매우 놀랐어요.

김민예숙: 정말 용감하시네요.

로라 브라운: 음, 전 유대인이예요. 원주민에게는 두 개의 모국어가 있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당시 러시아였던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서 오셨습니다. 조부모님은 이디시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디시어는 동유럽 유대인들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이디시어에는 후츠파 chutzpah⁵⁾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제 선배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저는 그다음으로는 먼저 이론적 개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에게 묻겠죠. 좋아, 이걸

상담으로 번역하였음(저자 주).

4) 로라 브라운이 언급하는 intersectional identity는 교차적 정체성으로, intersectional feminist therapy는 기존 여성학계의 번역에 따라 교차성 여성주의

5) 대담하거나 많은 “배짱이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이디시어 단어(출처: <https://ko.eferrit.com/이디시어> 사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성주의상담에서 교차성 여성주의상담 Intersectional Feminist Therapy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의 교차적 정체성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다른 정체성의 측면들도 있죠. 예를 들어, 선생님은 한국 여성으로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고통받은 사람의 후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억압받았던 여성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교차적 정체성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나 가족은 서울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시골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시골에서 자란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고, 가족 중 대학에 간 첫 번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반려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연애 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레즈비언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특정한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미국에 오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개신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도 한반도의 주요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차적 정체성이 될 것이고, 또한 가족의 세대 간 트라우마의 역사가 될 것이고, 그것은 일본에 의해 여러 번 점령당했고, 그 후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에 전쟁을 겪었던 한국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트라우마는 교차적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김민예숙: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주류 심리학

에 대한 비판 뒤에, 다른 여성주의상담자들과 연대하고, 이론적인 틀 작업과 개념화를 한 후 그것을 교차성 상담으로 확장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여성주의상담자로서 발달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로라 브라운: 네, 그리고 발달의 다른 부분은 자신의 이론적인 구조를 상담소에 오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증상이나 질병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반응으로서의 고통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여성주의 상담자로서 발달하는 큰 부분은 기존의 집단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김민예숙: 증상이란 억압적인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초기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로라 브라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애착과 트라우마의 신경생물학적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생물학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가 미시적 공격이라고 부르는 또는 제 동료 마리아 루트(Maria Root)가 교활한 트라우마 insidious trauma라고 부르는 것⁶⁾, 그러니까 우리가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 차

6) 인종차별, 이성애주의, 연령차별, 능력주의, 성차별 및 기타 억압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구성원과 빈곤의 영향을 받는 집단이 매일 겪는 소외, 대상화, 비인간화, 위협 등을 의미한다고 마리아 루트는 설명하고 있다

(출처: <https://vawnet.org/sc/definitions>).

별, 동성애 혐오에 매일 노출되는 것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들은 전쟁이나 성폭력 같은 엄청난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그 역시 우리의 신경생리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느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50년 전에 말하던 것의 생물학적 토대를 갖고 있어요.

김민예숙: 그러니까 뇌과학은 여성주의상담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군요. 좋아요. 선생님의 발달단계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주의상담자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나요?

로라 브라운: 아, 바로 생각나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여성심리학회 학술대회에 갔을 때, 저보다 한두 세대 위인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거기 있다는 사실에 신나 했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제 커리어에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 쓰고, 학회에서 발표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 커리어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이 멋진 선배들과 연결될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요. 그들 중 몇몇은 여전히 제 친구이고, 여전히 살아 있어요. 제 친구이자 멘토예요.

트라우마와 여성주의상담

김민예숙: 선생님의 경험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선생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글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트라우마 작업에 여성주의상담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로라브라운: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더 나은 질문은 “어떻게 여성주의상담 없이 트라우마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 메리 하비(Mary Harvey), 레노어 워커(Lenore Walker), 다이애나 러셀(Diana Russell), 크리스틴 쿠르투아(Christine Courtois) 그들 모두 여성주의상담자들이었고, 그들 모두가 데이트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전쟁과 재난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졌다면 저는 트라우마라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여성주의상담의 이론을 빌렸지만 항상 그 공로를 인정하진 않죠. 하지만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와 회복 Trauma and Recovery⁷⁾>은 아마도 트라우마 분야에서 쓰여진 가장 중요한 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주의상담이론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주디스 허먼이 여성주의상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성주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와 딸 근친강간 Father-Daughter Incest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그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은 근친강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자고 했던 여성주

7) 미국에서 1997년 출판되고 한국에서는 2012년 최현정이 번역하여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저자 주).

8) 1981년 미국 출판 후 한국에서 2010년 박은미, 김은영이 번역하여 『근친 성폭력 감춰진 진실』로 출판되었다(저자 주).

의자들이 없었다면 트라우마 심리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지진을 보는 것은 쉽죠. 하지만 근친강간은 비밀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기 어렵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은 비밀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행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인 강간 acquaintance rape 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데이트 강간’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은 여성주의상담자인 메리 코스(Mary Koss)의 작업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비밀리에 일어났지만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커튼을 찢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 없이는 트라우마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분야를 개척한 여성주의자가 없이는 말이죠.

김민예숙: 어떻게 트라우마 치료가 여성주의 상담에서 유래했는지 잘 알려주셨어요. 주디스 허먼의 책도 한국어로 번역되었어요.

로라 브라운: 저는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모든 사람은 그녀의 책을 읽고 나서 내담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책을 아마 15권이나 20권 정도 나눠줬거든요. 몇 년 동안, 저는 그것을 내담자에게 읽으라고 주었고, 그 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책을 샀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그 책을 주었고, 또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다시 책을 샀습니다. 나는 그녀의 책을 너무 많이 샀어요. 그 책은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회복할 수

있어요.”라고요.

김민예숙: 내담자들이 그 책으로 치유가 되어서 다시 오지 않은 건가요?

로라 브라운: 책들을 가진 거예요. 책에 밑줄을 쳐버려서 돌려주지 않은 거죠. 또는 거기에 커피를 엮기도 하고요. 내담자들이 내게 와서 말하길 “미안해요. 책을 돌려줄 수 없어요. 나는 그 책이 필요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다시 책을 사면 된다고 했죠.

김민예숙: 아 내담자들은 다시 찾아왔지만, 책은 오지 않은 거군요.

로라 브라운: 네, 내담자들은 돌아왔지만, 책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제 상담소에서 없어진 책들이요. 내담자들은 돌아왔지만, 책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아요.

김민예숙: 그렇군요. 여성주의상담에서 유래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로라 브라운: 음, 어디 봅시다. 음, 모든 것은 시스템적 여성혐오와 유독한 남성성 toxic masculinity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유독한 남성성을 연구하는 전체 분야는 여성주의 심리학에서 비롯됩니다. 소녀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여성을 향한 성적 학대, 성폭행, 성매매, 폭력적인 포르노를 이끈다는 우리의 이해,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의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 여성이 특정한 사 이즈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불규칙한 식생활 이나 운동 장애에 기여한다는 이해, 엄마가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게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것의 영향에 대한 이해 등등 이요. 저는 엄마가 될 용기가 없었어요. 아 니, 이렇게 말해볼게요. 저는 아이들이 저를 엄마로 두는 고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 어요. 확신하건대 전 몹시 나쁜 엄마가 되 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여성주의상담은 최근에 죽은 폴라 카플란(Paula Kaplan)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폴라의 책, <엄마를 비난하지마 Don't Blame Mother>에서, 그녀는 그들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엄마들이 비난받 는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여성주의상담은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 우리 가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과 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비병리적인 관점을 갖 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레즈비언, 양성 애자, 비이성애자, 무성애자, 혹은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인간의 일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말이죠. 여성주의상담은 여성의 노 화가 어떤 것으로 쪼그라들거나 활기를 멈 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노화가 정말로 무 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4개월 후면 저는 70살이 되는데요. 몸이 안 좋고 암에 걸렸어도 저는 여전히 활기차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 무술인 합기도 연습을 해요. 저는 지금 합 기도 2단 검은띠이고요, 합기도를 50살 때 시작했습니다. 여성주의상담은 여성이 늙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주었 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성주의 심리학자

들과 여성주의상담자들의 연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김민예숙: 정말 많군요. 그런데 여성주의상담 자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나 요?

로라 브라운: 그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일단 아이디어가 주류에 들어가면요. 예를 들게요. 여성주의상담자들, 레이첼 헤어 - 머스틴(Rachel Hare-Mustin), 진 램 타오(Jean Lamb Tao), 한나 러만(Hannah Lerman)은 처음으로 우리가 상담에 대한 동의서를 서 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논문을 썼 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진 적이라고 여겨졌어요. 제3 저자 한나 러만 (Hannah Lerman)은 대학원에서 저의 좋은 친구였어요. 그들은 이 논문을 썼는데, 아마 1978년에 출판된 것 같습니다. 왜 매우 급 진적이었을까요? 왜 우리가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이제 그것은 표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성주의상담자가 이걸 생각해냈다고 말하 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이제 법인 거죠. 1973년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성관계를 갖 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일 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예를 들 어, 유명한 상담자 프리츠 펄스(Fritz Perls)는 내담자들과 성관계를 했어요. 조지 바흐 (George Bach)도 내담자들과 성관계를 했어 요. 네, 그건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 한 노력을 이끈 사람은 여성주의 심리학자 이자 제 멘토인 한나 러만입니다. 네, 그리 고 제가 1974년에 처음으로 미국심리학회 컨벤션에 갔을 때,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제

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토론을 지켜 보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의견은 반영되었어요. 상담자는 내담자와 성관계하지 않습니다. 내담자였던 사람과 성관계하지 않아요. 네, 이것은 여성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요. 어떤 아이디어가 주류가 되면, 트라우마 심리학처럼, 사람들은 그것이 여성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괜찮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주류에 완전히 통합되는 한, 심지어 가장 비여성주의적 교수들도 그것을 가르치고, 심지어 가장 비여성주의적 학생들도 그것을 배우는 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합니다, 집중하세요. 이걸 여성주의자들이 만들었어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 주류 심장부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류를 밀어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기가 여성주의상담이 있던 곳이라면, 주류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이제 주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의상담은 더 발전했습니다. 주류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가 공로를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 말은, 제가 글을 쓸 때, 저는 제 선배들이 공로를 확실히 인정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공로를 인정받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저한테 중요한 거죠.

김민예숙: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성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로라 브라운: 아니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여성적이지 않아요. 저는 권력에 관심이 많아요. 네, 문제는 ‘우리가 강력했나?’는 것이고 그 답은 ‘그렇다’예요. 우리는 강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력했다면, 그것이 하드 파워든 소프트 파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었나? 우리가 50년 전에는 급진적이었던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받아들일 정도로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김민예숙: 그걸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군요.

로라 브라운: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복적 대화 Subversive Dialogues>를 썼을 때, 전복적이라는 단어, 전복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정면으로 들이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이 아래로 가거나, 혹은 둘러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류가 당신보다 더 많은 힘을 가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면으로 들이받으면 그들이 당신을 이길 거예요. 반면에, 흥미롭게도, 제 무술인 합기도는 누군가 당신에게 덤벼들면, 길을 비켜주고,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의상담은 그런 점에서 합기도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보다 크다면, 저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을 쓰러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죠.

바래요.

미국 여성주의상담의 역사 그리고 한국

김민예숙: 선생님은 제가 1977년에 한국에서 첫 여성학 강의를 수강했을 때 느꼈던 그 흥분을 떠올리게 하네요. 제가 대학 4학년이었을 때요. 그건 한국의 최초의 여성학 강의였어요.

김민예숙: 그렇네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초기 시절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여성주의상담의 초기를 돌아보면서 특히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로라 브라운: 그때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하이군요. 틀림없이 흥분되고 눈뜨게 하고 또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도 그 수업을 듣는 걸 허락하지 않는 손 위 가족 구성원이 있었겠네요.

로라 브라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자매애입니다. 저는 경쟁의 완전한 부재, 따뜻함, 지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졌던 열정, 서로에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려는 사람들의 열린 마음을 기억합니다. 제 말은, 이것은 인터넷,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이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거리 전화를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 전에 돌아가신 아드리안 스미스 (Adrian Smith)나 한나 러만 같은 사람들이 저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동료들과 서로를 돕고,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발전시키고, 서로가 동료 수퍼비전을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정말 너그러운 마음들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커리어 내내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면 전 제가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다지 미국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는 매우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1등을 기대하죠. 그리고 여성주의상담자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도 그러지 않았기를

김민예숙: 그랬죠. 그들은 제가 왜 그 수업을 듣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어쨌든 저는 제가 그 강의를 원한다고 우겼어요. 저는 학부생으로 당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주의상담가로서의 제 커리어를 10여 년 후인 1990년대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혼자였죠. 다른 여성주의상담자가 없었어요. 제 말은, 여성주의상담자, 교수, 또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많았죠.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선생님이 느꼈던 자매애가 부러워요.

로라 브라운: 만약 제가 10살 더 많았다면 저 역시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이었을 때, 제 선배들은 30대였거든요. 그들은 많이 외로웠고 여성주의상담자가 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했어요.

김민예숙: 선생님은 멘토가 있었고, 또한 다른

많은 상담자에게 멘토가 되어주셨네요. 선생님의 커리어에서 멘토, 멘티 경험을 회상해보면, 여성주의상담자의 길을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신이 있을까요?

로라 브라운: 글썄요, 우선, 제 생각에, 우리 각자는 선배 여성주의상담자로서 다음 세대를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여성주의상담가인 손주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멘토링 했던 사람들이 멘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심리학회에 가면 누군가가 다가올 거예요. 아주 젊어 보이지만, 제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브라운 박사님, 저는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 교수님이 읽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오!!” 그러지요.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쉽게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멘토링 하는 사람들로 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멘토링 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협력 관계인 여성주의상담처럼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멘토 관계 또한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 추측인데요. 저는 동아시아가 가진 문화 구조가 더 위계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보다 아랫사람이 당신에게 줄 것이 있다는 개념이 동아시아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요. 물론 미국도 완벽히 맞지 않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우리는 조금 더 자유분방함

니다. 저는 제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저를 가장 많이 가르쳐준 사람들은 제 내담자이고, 제 학생들, 제 멘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들이나 확실히 제 대학원 과정의 교수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제가 이 책을 썼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게 가르쳐줄 게 있어요. 아직은 뭔지 몰라도요.

김민예숙: 네,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님이자 학생이지요.

로라 브라운: 정확해요.

김민예숙: 선배들의 그런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야 하겠네요. 미국에서 여성주의 상담자 훈련과정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로라 브라운: 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진 베이커 밀러(Jean Baker Miller)의 관계문화치료 외에는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진 베이커 밀러 센터 Jean Baker Miller Institute는 관계문화치료 상담자들을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여성주의상담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훈련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임상심리학이 아닌 상담심리학 분야인데요. 임상심리학은 여성주의 사상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상담심리학은 실제로 여성주의상담이 성장하고 육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상담심리학 과정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에는 심리박사과정 PsyD program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박사과정과는 달리,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실제 상담자가 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심리 박사과정에서도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항상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도제(견습)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3년 반 전에 내담자를 만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제 암 진단 직전에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 후배인 약 20명의 다른 상담자들의 수퍼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워크숍에 오면 수퍼비전과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만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상담자들을 위한 수퍼바이저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막 그곳의 여성주의상담 훈련 프로그램 녹음을 끝냈어요. 또 저는 독일과 터키의 여성주의상담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팬데믹 이후로, 세상은 줌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네~ 줌으로요.) 비행기의 마일리지가 적어지지만, 시차 적응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수퍼비전을 합니다. 제가 직접 하곤 했는데 지금은 줌으로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비공식적인 수퍼비전, 워크숍 같은 것입니다. 저는 계속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예숙: 한국과 비슷해 보이네요. 몇몇 대학원 과정에서 여성주의상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수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선생님과 위켄과 리머, 앤스의 책을 사용하고 제 책도 역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회는 체계적인 여성주의상담 교육을 제공하는 유

일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초급에 40시간, 중급에 40시간의 교육을 제공합니다⁹⁾. 그리고 곧 고급과정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을 위해 여성주의상담 구조화모델을 발전시켰고, 그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로라 브라운: 정말 인상적이고 신이 납니다.

김민예숙: 고맙습니다. 워크숍과 수퍼비전을 제공한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선생님의 워크숍에 대해 더 설명해줄 수 있나요?

로라 브라운: 누군가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주제에 관한 워크숍을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합니다.

김민예숙: 우리가 선생님에게 그걸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로라 브라운: 예를 들면, 상담센터의 임상감독 협회에서 나에게 자기 돌봄에 대한 자유주의적 교차성 모델에 대한 주제로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자기 돌봄은 윤리적 의무이고, 그것은 여성주의상담에서 왔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성주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워크숍을 해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죠. 또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서 묻습니다. “전 지향이 없는 상담자인데요. 저를 수

9)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여성주의상담자 훈련과정’에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초급 1기~7기 142명, 중급 1기~3기 40명이 수료하였다(출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퍼비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시간과 과정을 계산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빈도로 그것을 합니다. 강의를 위한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 초대에 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그것이 제가 알고 유능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라고 답합니다.

김민예숙: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에게 요청한다면 한국에 오실 수도 있겠네요. 이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예요.

로라 브라운: 음, 팬데믹이 끝난 후라면 확실히요.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기 전이라면 줌으로 할 수 있어요. 워크숍을 줌으로 할 거예요. 그건 제 항공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더 싸겠지요.

김민예숙: 그렇죠, 더 싸고 편리하죠. 이 워크숍과 수퍼비전을 중국인과의 한다는 거죠?

로라 브라운: 네, 불행하게도 워크숍은 영어로 해요. 그들은 그것을 녹화하고, 자막을 넣어서 볼 수 있게 해요. PPT도 있어서 그것도 자막을 넣고요. (그렇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고 이 조직을 통해 출판되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에 저에게 연락했던 사람은 제 책을 읽었어요. 흥미로운 점은요. 제 책의 한국 번역은 공식적이었고,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진행되었어요. 그건 놀랍지 않지만, 미국의 저작권법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냥 제 책을 번역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책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국 여성운동의 초창기에 우리는 데모할 때 쓰는 기계로 복사했어요. 보라색이 나는 종이였죠. 우리는 논문을 쓰고, 그것들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돌려보곤 했습니다. (맞아요.) 또 학술대회에 갔다가 집에 와서 복사해서 돌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쓴 것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학술 출판일 때는 돈을 별로 벌지도 못합니다.

김민예숙: 맞습니다.

로라 브라운: 내가 무엇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은 그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예요.

심리학회와 여성주의상담

김민예숙: 미국에서 또는 미국심리학회에서 여성주의상담의 위치는 어떠한가요? 여성주의상담자이기 때문에 학회에서 받는 차별은 없습니까?

로라 브라운: 더 이상은 없어요. 예전엔 있었죠. 50년 전에는요. 미국심리학회의 회장 테마 브라이언트(Thema Bryant)는 급진적인 우머니스트이자 여성주의상담자예요. 우머니스트는 흑인 여성주의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스페인 여성주의상담자인 바스퀘즈(Melba Vasquez)도 만났어요. 우리는 상담심리학자

이자 여성주의상담자인 산드라 술만(Sandra Shullman)이 있고, 역시 여성주의상담자인 제시카 헨더슨 다니엘(Jessica Henderson Daniel)이 있습니다. 최근 다섯 명의 여성주의상담자 회장이 있었어요. 1985년에는 첫 번째 레즈비언 회장이자 여성주의상담자인 보니 스트릭랜드(Bonnie Strickland)가 있었고요. 제 멘토인 플로렌스 덴마크(Florence Denmark)는 미국심리학회 회장이 된 첫 여성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우리는 미국심리학회에 침입했고, 그곳을 점령했어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김민예숙: 50년 전과 많이 달라졌네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때는 언제인가요?

로라 브라운: 저는 그 변화가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엔 70년대에 훈련을 시작했거나 훈련 중이었던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미국심리학회의 리더가 되었고, 미국심리학회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진에 있거나, 종신 재직권을 취득했거나, 그리고 충분히 출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가 미국 심리학에서 교차성 여성주의상담자가 되기에 매우 좋은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김민예숙: 30년이요. 네. 교차성 여성주의상담이 미국의 주류 심리학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고무적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심리학회에서의 우리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아직 여성주의상담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로라 브라운: 전 아직 그 세상이 오지 않은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1974년에 처음으로 미국심리학회에 갔을 때, 거기에도 아직 여성주의상담을 위한 공간이 없었거든요.

김민예숙: 아직이요. 네.

로라 브라운: 네, 그때 단 하나의 프로그램만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미국심리학회에서는, 포스터 발표 때문에 선생님도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저는 주로 친구들을 만나러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프로그램에 가려 했다면, 저는 4~5가지 중 하나를 동시에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영어로 부자의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 대신에 이제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시간에 6개의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분과에서 진행됩니다. 여성 심리분과 뿐만 아니라 플로렌스 덴마크가 회장이 된 국제분과에서도요. 플로렌스가 국제심리학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왔고 남성과 남성성 학회, 트라우마 심리학회, 상담심리학회, 일반심리학회, 그리고 심리학의 역사학회 전반에 걸쳐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두리에 있던 것을 벗어났고 우리가 미친 것처럼 취급받았던 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미국은 반동적인 시기를 겪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반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런 반동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있어서 더 진보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과 문을 두드리는 망치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꺼지라고 할 때, “아니,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문이 조금 열리면 여러분은 발이 아니라 문에 막대기를 꽂습니다. 그들은 문을 쿵 닫으려고 할 테니까요. 발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막대기를요.

김민예숙: (웃음)

로라 브라운: 그리고 나서 다음엔 더 두꺼운 막대기를, 그다음에 더 두꺼운 막대기를, 더 두꺼운 막대기를요. 그리고 문은 열립니다. 주류 심리학은 말합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학회지에 논문을 실었어. 우리는 당신의 학회지에 뭔가를 실었어.”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은 커지죠.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김민예숙: 하지만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렸네요. 그렇죠?

로라 브라운: 네, 우리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물쇠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김민예숙: (웃음)

로라 브라운: 지금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는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중단할 권리 같은 것이요.

김민예숙: 네, 안타까워요.

로라 브라운: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는 아직 낙태권을 갖고 있지만요.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계속 열어 두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어요.

김민예숙: 맞아요. 한국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여성주의상담의 이름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주의상담의 내용을 좋아하지만, 이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다문화 상담과 사회정의 상담이 여성주의상담의 이름을 대체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로라 브라운: 뭐라고 할까요. 같은 비판이 미국에서 여성주의상담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왜 당신은 이것을 여성주의라고 부르나요? 사람들은 여성주의를 부정적인 것과 연관 짓고 있어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고수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를 이름을 통제하고 여성주의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상담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사회정의 상담에는 여성주의상담과 다문화, 퀴어 친화적 상담이 포함됩니다. 그

리고 이 모든 다른 형태의 심리학도요. 사회정의는 큰 우산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는 항상 “왜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대답은, 사람들이 그 단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 그 단어에 대한 거짓말을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저와 연관시키고 제가 아이디어를 실천할 때 사람들은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주의상담이 교차적, 자유주의적 탈식민지 여성주의의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비판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젠더에 대해, 그리고 여성으로 태어난 인간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가부장제엔 매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는 억압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가부장제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말하지만, 가부장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부장제는 여성주의가 없어지고 침묵하고 스스로를 뭔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가부장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제 일생에 그런 일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좋은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김민예숙: 다른 이름들이 여성주의상담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서 기쁘네요. 여성주의상담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그 자체로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저항의 방식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로라 브라운: 네.

김민예숙: 한국에서, 여성주의상담은 전문적인 상담가 또는 여성 폭력 관련 기관의 활동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가요?

로라 브라운: 미국은 매우 큰 나라이고, 주마다, 지역마다 몹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반폭력 단체가 기관화되어 더 이상 여성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성주의적 뿌리는 그들이 단지 또 다른 사회 복지 기관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여성주의상담자들은 대학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개인 상담소를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일하고, 클리닉에서 일합니다. 제 멘티 중 한 명은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하고, 그래서 그녀는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성주의상담을 합니다. 저는 여성 수감자들과 여성주의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상담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여성주의상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마다, 주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 워싱턴 주에서 평범한 것은 텍사스에서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김민예숙: 한국은 미국의 하나의 주보다 더 작죠. 하지만 단체의 기관화 문제는 한국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직업이 되고 있어요.

로라 브라운: 네, 안타깝죠. 우리가 친밀한 관

계에서의 폭력이, 성폭력이, 성적 학대가 여성혐오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유독한 남성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여성혐오와 유독한 남성성으로 엄청나게 감염된 상처에 단지 반창고 하나를 붙이는 것처럼 될 것이요.

김민예숙: 그렇죠. 유독한 남성성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로라 브라운: 그것은 미국심리학회의 회장이었고 제 친구이자 동료인 여성주의자 론 르반트(Ronald F. Levant)의 작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르반트는 먼저 부성애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성들의 경험에서, 그는 알락시티미아 Alexithymia¹⁰라는 용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0년대에 그와 남성 여성주의자 운동의 다른 사람들은 이 신조어, 유독한 남성성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냈습니다. 남성다움이 주류에서 행해졌던 때, 남성다움은 남성들에게 위협했다는 생각도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주의적 분석입니다.

여성주의상담의 미래

김민예숙: 2019년에 있었던 50주년 미국 여성 심리학회에서 여성주의자에게, 해방적 심리 치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더 쓸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성주의상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감정표현 불능증으로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성격 특성(출처: Wikipedia에서 일부 발췌)

로라 브라운: 저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미래 중 하나는 여성주의상담이 더욱 국제적인 실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미와 유럽에 너무 많이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의상담은 진정으로 국제적인 실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가부장제와 가부장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여성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했듯이, 한국의 가부장제는 미국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입니다. 또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미국 이외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다르게 보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번역한 캐럴린 저브 앤스 그리고 주디스 위렐과 함께 일했으며 대만에서 많은 작업을 한 팸 리머(Pam Remer¹¹), 또 태국에서 태국의 여성주의상담자들과 함께 일한 캐서린 놀스워시(Kathryn Norsworthy) 같은 동료들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성주의상담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완전히 국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럽과 영어권 밖에서도 세계의 더 발전된 곳에서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미에서 작업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엘렌 캐색(Ellyn Kaschak¹²)은 <젠더화된 삶 Engendered Lives: A New Psychology Of

11) 파멜라 리머, 주디스 위렐과 함께 2003년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를 출판하였으며 이는 2004년 한국에서 김민예숙, 강문순이 『여성주의상담의 이론과 실제』로 번역, 출판하였다(저자 주).

12) San Jose State University의 심리학과 교수이며 Feminist Therapy Institute의 전 회장(출처: Wikipedia).

Women's Lives>이라는 책을 썼고 <전복적 대화 Subversive Dialogues>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엘렌은 코스타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가르쳤고, 그곳에서 은퇴했습니다. 서구의 남반구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국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더 분명하게 탈식민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식민지 국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원주민들의 식민지화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두와미시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겼죠. 유럽 정착민들, 미국, 캐나다, 모든 서반구는 유럽인들이 원주민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맞아요.)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식민지화는 트라우마입니다. 세계에서 식민지화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05년에 대만에 가서 가르쳤을 때, 저는 일본인들에게 식민지화 당하기 전에 중국에서 온 한족들에게 식민지화된 대만의 원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곳에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화는 특정한 형태의 가부장제를 가져와 (맞아요.) 사람들의 토착 관행을 말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과 남성의 지위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북미에서는, 우리가 퍼스트 네이션 또는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많은 원주민은 더 성평등했습니다. 모계 사회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 당신네 남자들과만 대화하겠어.” 그들은 땅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힘을 훔쳤고, 이 문화들이 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식민지화 되어

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식민지화되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심리치료가 얼마나 식민지화된 직업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치료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식민지화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 슬로모(Shlomo)였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반유대주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화되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기에 유대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존재의 동화주의적 방식이 심리치료가 나아가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업의 핵심에 식민지화가 있다고 기꺼이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뿌리로 돌아가서,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야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출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문화의 역사와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식민 지배를 받아왔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리 치료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그곳이 여성주의상담자들이 가서 생각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되어야 하고 탈식민지화되어야 합니다.

김민예숙: 네, 그러니까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전 인류를 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로라 브라운: 네, 그리고 우리는 서구의 심리학이 어떻게 세계의 나머지를 식민지화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토착 심리학이 발전하도록 비켜서야 합니다.

김민예숙: 맞아요. 선생님은 탈식민지화와 같은 새로운 심리학 아이디어를 통합함으로써 선생님의 인식론을 심화시키고 있네요. 심리학자로서 어떻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억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로라 브라운: 글썄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 당신이 연구자라면, 그것들을 연구하겠죠. 하지만 상담자로서, 여러분은 그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방식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상담에서 일어나는 일에 부합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궁금해할까요? 알아챘나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 큰 그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군요.) 때때로 그걸 보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소년이었을 때 가톨릭 신부들에게 강간당한 남자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자가 강간당해서는 안 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제들에게 강간당했어요. 그들은 와서 제 동의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성주의상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지요. “조금만 시도해 보세요. 나중에 당신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3개월에서 6

개월 후 그들은, 이것이 그가 자신이 이런 일을 겪은 남자라는 것을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진실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또한 그들 주변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김민예숙: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선생님은 내담자로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을 보고, 더 큰 그림을 보고, 그러면서 인식론은 더 깊어지고 있는 거군요.

로라 브라운: 네. 그리고 저는 상담실에서 내담자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을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어떤 연결을 만들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우리는 그들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깨달은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김민예숙: 네, 알겠어요. 저는 제가 조건화의 모델이라고 부르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안에서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 속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내담자와 함께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성주의상담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로라 브라운: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의 부재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여성주의상담을 연구할 수 있는 여성주의상담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성주의상담은 초 이론적이고 통합적 인식론이기 때문이고, 가끔 ‘이것이 여성주의상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 연구 outcome study¹³⁾이기 때문입니다. 워렐과 리머가 약간의 결과 연구를 해왔고 토론 토에 있는 한 여성주의상담자도 결과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관계와 심리치료의 증거 기반의 연구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여성주의상담자들이 종신 재직권을 얻고, 가르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은 미국에서 보편적인 정신 건강 관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직업이 없으면 보험에 들 수 없다는 것이요. 보험이 없으면, 그들은 상담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젊은 치료사들이 엄청난 학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저비용 상담은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돕는 1만 달러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요. 제 학생 중 일부는 졸업할 때 25만 달러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평생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 우리는 대학원 교육을 더 저렴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성주의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요. 그러니 더 많은 연구, 더 많은 접근, 더 나은 의료 보장이 필요해요.

김민예숙: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여성주의상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로라 브라운: 와우! 우선,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했던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급진주의와 자유분방함과 사상의 자유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는 그러한 사상들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상처에서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거의 다 나았다고 해도 상처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휴전선 반대편에는 무서운 사람이 있고요. 또 아직도 일본의 지배와 식민지화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응해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은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곳보다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더 나쁘겠지만, 여러분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인터뷰해 달라고 요청해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미국의 여성주의상담자들이 국제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조금 해봤지만 대부분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들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스라엘에서 여성주의상담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고, 그 언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전 체코와 유럽에서 가르쳤어요. 또 대만에서 가르친 적은 있지만, 다른 곳은 많이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13) 개입 유형 또는 기법(예: 우울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신 요법)의 효과 또는 다양한 개입 유형 또는 기법(예: 우울증에 대한 인지 행동 요법 대 약물 요법)의 비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즉, 결과 연구는 참가자가 개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출처: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을 상기시켜줍니다. 줌이나 팬데믹이 끝난 후에 직접 저에게 다시 요청해 주세요. 시애틀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편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예숙: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여성주의상담자라고 정체화했고, 50년 동안 여성주의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해 왔는데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여성주의상담가들은 선생님의 통찰력에 자극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과 우리 연구회 사이에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라 브라운: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감사하다'를 뭐라고 하죠?

김민예숙: 감사합니다.

로라 브라운: 감사합니다

김민예숙: 대담 후에 계획된 가족과의 시간 잘 보내세요.

로라 브라운: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 지내시고요. 자신을 돌보고 안전하세요.

참고문헌

- 고혜경 (2022). 여성주의상담자 훈련과정의 교육효과성과 참여자 교육경험 연구. 여성주의상담연구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pp. 43-65).
- 홍상희 (2017). 여성주의심리학의 거장들.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여성주의상담자 훈련과정: 초급 3기 자료집(pp. 36-51).
- APA, outcome-research. (2023.1.21.). <https://dictionary.apa.org/outcome-research>
- APA, Naomi Weinstein. (2023.1.21.). <https://psycnet.apa.org/record/2015-16270-019>
- Wikipedia, Alexithymia. (2023.1.21.). <https://en.wikipedia.org/wiki/Alexithymia>
- Wikipedia, Ellyn Kaschak. (2023.1.21.). https://en.wikipedia.org/wiki/Ellyn_Kaschak

1차원고접수 : 2023. 01. 25.
최종원고접수 : 2023. 03. 30.

Special Talk: KimMin Yea-sook talks with Laura Brown on Feminist Counseling

Ko Hye-gyung ChoiBark Mi-ran Kim Hyeon-jeong KimMin Yea-sook
Feminist Counseling Research Society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the Feminist Counseling Research Society under the Korean Society of Woman Psychology organized a special talk, “KimMin Yea-sook, Have a dialogue with Laura Brown about feminist counseling”, to examine the history and the vision of feminist counseling in the U.S. that has developed ahead of Korea. By conveying the contents of this special talk that impressed the participants as it is, this paper aims to present women’s voices and the position of feminist counseling within counseling psychology in a real voice. KimMin Yea-sook is one of the second generation of Korean feminist counselors and a pioneer who has led Korean feminist counseling through the feminist counseling lab and the feminist counseling research society, and is the author of 『A Structured Model of Feminist Counseling(2013)』. Dr. Laura Brown is an American feminist counselor and trauma survivor counselor who has served as chairman of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y of Women in the U.S. and is widely known in Korea as the author of 『Subversive Dialogue(1994)』 and 『Feminist Therapy(2018)』. In the talk, we can see how Laura Brown and KimMin Yea-sook have become feminist counselors in the early and mid 1970s, the development of feminist counsel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on of feminist counseling in Korea and that of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we can sense the firm belief and value of a counselor who has devoted herself to feminist counseling and trauma therapy for more than 50 years. It is clear that this will be a great echo not only to feminist counselors, but also to counselors who has other theoretical background and woman psychology researchers.

Key words : Laura Brown, Feminist Counseling in the U.S., Development of Feminist Counselor Identity